

“산업의 디지털 미래 혁신”을 이끄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

- 혁신을 이루려면 모든 업무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이 선행되어야
-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 컨퍼런스 코리아 2017(Schneider Electric Software Korea Conference Korea 2017)를 알리는 “산업의 디지털 미래 혁신” 기자간담회 열려

글로벌 공정 최적화 및 자동화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 코리아(대표 : 김경록)가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 컨퍼런스 코리아 2017(Schneider Electric Software Korea Conference Korea 2017)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지난 9월 8일 신도림동 웨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7층 릴리룸에서 열었다.

“산업의 디지털 미래 혁신”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아태지역 소프트웨어 영업 총괄인 이강주 전무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디자인,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 사업부의 담당 대표인 토비아스 쉐레(Tobias Scheele) 수석 부사장이 참석하여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 코리아가 산업용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제조뿐만 아니라 오일 및 가스, 석유화학, 전력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이루는 디지털 혁신에 대하여 발표하고, 제조 분야를 변화시킨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였다. 취재 이충훈 기자



슈나이더 일렉트릭 디자인,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 사업부 토비아스 쉐레 수석 부사장

🎤 컨퍼런스와 기자간담회를 연 이유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 컨퍼런스 코리아 2017 (이하 소프트웨어 컨퍼런스)’는 오늘(9월 8일) 하루 개최되는 콘퍼런스 세미나이며, 기업의 디지털화(Digitize),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과 강화(Empower)를 통해 산업의 디지털 미래를 강화한다는 주제로 열리며, 기업이 디지털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업계 전문가와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고객의 성공 사례를 통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로서 부상할 수 있는 사업 고도화 전략을 제시한다.”

🎙️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심은 '사람'이다.

슈나이더가 말하는 IoT 전략의 핵심인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전산화(매뉴얼 할 수 있는 것을 컴퓨터로 바꿈)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모든 프로세스, 업무적인 일, 자산을 투명하게 숫자로 계량화하여 보여주고, 정보를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활용해서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예전의 이노베이션처럼) 번데기가 나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바꾸어나가는 필수요건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럼 ‘트랜스포메이션은 왜 하느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믿음과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AR VR, 평상시 못 봤던 것을 안경을 쓰니 자신이 가보지 않은 가상세계가 보여, 힘을 얻은 사람은 좀 더 나은 결정을 안전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이 슈나이더가 말하는 IoT 전략이다.”

🎙️ 슈나이더의 IIoT 리드 전략은?

“슈나이더는 IoT 트렌드에 맞춰 훨씬 강화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 물리적인 사물과 컴퓨터에 동일하게 표현되는 가상 모델) 전략을 보여준다. 슈나이더는 전통적인 IIoT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회사는 정보를 추출해야 하고, 정보를 지식(Knowledge)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는 것과 지식은 차이가 있다. 지식을 알았다 해도 액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용지물. 실제 공장을 그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같은 쌍둥이 모델을 통해 테스트해보고, 검증해보고, 최적화해보고, 과정을 예측해볼 수 있다. 심사이(SimSci)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50년 된 핵심기술(핵심적인 엔진, 상하좌우로 많은 부품을 보유하고 있음)을 가지고 있기에 슈나이더는 IoT 트렌드에 맞춰 훨씬 강화된 디지털 트윈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아태지역 소프트웨어 영업 총괄 이강주 전무는 “트랜스포메이션은 혁신이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이 선행되어야 하며,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의해 작업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 혁신을 이루려면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조 분야를 변화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해달라?

“1967년 설립된 국내 최초 민간정유회사인 GS칼텍스는 온오프라인 통합 모델링 환경을 제공하는 공정 최적화 솔루션인 슈나이더의 로미오(ROMeO)’ 제품으로 전 공장을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영국의 석유회사인 BP는 디지털 전략의 하나로 클라우드 컴퓨팅인 ‘플래닝 및 스케줄링 소프트웨어’ 슈나이더의 제품을 최초로 탑재하여 시간과 비용 절감을 이루었다. 또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종합화학회사인 ‘바스프(BASF)’는 웹사이트 랜딩 페이지에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 전략 문구를 배치했다. 제조업에는 제조 과정이 있다. 예를 들어 식품회사는 라벨(태그, 바코드, QR코드)을 달아 제품을 추적하거나 품질관리를 할 수 있지만, 분자(Molecular)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석유제품을 만드는 바스프이기에

디지털 매뉴팩처링(Digital Manufacturing)이라는 또 다른 3가지 전략을 찾았다. 첫째가, 서플라이 체인 분야이다. 석유화학이라는 기본적인 원료를 사서 공장(공장은 물류 과정에서 돈을 남기는 코스트센터)을 제조해 파는 과정이 서플라이 체인인데, 그것이 회사의 수익을 좌지우지한다. 두 번째, 공장의 생산 현장(매뉴팩처링)에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을 어떻게 적용할까? 세 번째, 아무리 생산 현장을 디지털라이제이션화하고 물류 과정을 개선해도 일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세 가지 분야를 중점화하여 점진해 보자. IoT는 만능이 아니다. 각 분야마다 업체마다 적재적소에 활용할 때 그 가치는 빛을 발휘할 수 있다.”

● 지난 9월 4일(현지 시간) 아비바의 인수합병이 발표되었다. 아비바는 어떤 회사이고, 아비바 인수합병으로 얻게 되는 시너지효과는?

“프랑스 전자업체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영국 정보기술(IT) 기업 인수 가운데 최대 규모인 산업용 소프트웨어(SW) 회사 ‘아비바’와 4조원 대 인수합병에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9월 4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아비바는 1967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벤처기업으로 분사했으며, 석유·가스·광물·제지 분야에 산업용 SW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인수합병은 고객들의 요구로 이루어졌으며, 인수합병으로 아비바의 설계(CAD) 데이터의 자산관리와 슈나이더의 일렉트릭의 IoT를 기반으로 한 정보처리기술(OT+IT)이 컴비네이션 되면 훨씬 강화된 사업을 펼칠 수 있다.”

● 귀사의 장점은 무엇인가?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는 프로세스의 수직라인과 수평라인을 연결하는 IT 기술과 오일, 가스, 석유화학 등의 산업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풍부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인벤시스만 보더라도)은 타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버티컬 솔루션이 확대되어 있다. 수직적인 공장에는 많은 IoT 디바이스가 있다. 프로세스 하단의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컨트롤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단까지 수많은 솔루션을 이어주고, 공장의 설계부터 공장의 운전, 메인テナンス(Maintenance)까지 에셋 라이프 사이클(Asset life cycle)의 모든 단계를 자사의 솔루션이 책임진다. 하위부터 상위까지 솔루션을 크로스용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다.”

●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를 소개해 달라?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는 글로벌 공정 최적화 및 자동화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그룹의 계열사인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는 공정 자동화 전문 기업 인벤시스(Invensys)와 공정 시뮬레이션 전문 기업 심사이(SimSci)를 인수하고,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을 통합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장해왔다. 50년 이상의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산업 분야의 제조 공정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공정 엔지니어링, 엔터프라이즈 공급망 관리와 운영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인더스트리 분야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여 생산성, 정밀성, 안전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킨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아반티스(Avantis), 원더웨어(Wonderware)와 심사이(SimSci)가 있다.”